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新聞되길



최원일
포천경찰서장

작금에는 방송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의 인플레라 할 정도로

수익이 많고 다양한 정보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귀지의 주민생활에 녹아내리는 양질의 정보 제공이아말로 어둠의 밤길을 비추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조그만 지역지로 출발하여 지금은 미국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신문으로 발돋움하는 등 지역지의 발전가능성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공간 신상에 있습니다.

이에 포천신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연구· 모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감동할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정보의 발굴, 제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지역신문으로서 독자적이고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가일층 사랑 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다시한번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京畿北部 제1의 신문사로 성장하길



이대열
포천소방서장

뜨거운 애항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큰 보탬을 주시고 정의를 위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포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포함합니다. 때로는 전 주민의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각종 재난·재해방지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걱정 메시지를 남기는 등 우리 고장의 소식을 낱낱이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고마운 신문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품격 높은 지역주민의 의식고양을 위한 물질적태도를 제공함과 아울러 위상의 기록자로 그리고 시정의 감시자로 때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뉴스로 우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바로서 있어야 국민의 정신과 사회의 정신으로 이어짐을 인지하시고 약하고, 힘없고, 작은자들의 편에 서서 소외계층의 반역자가 되며, 작은 일들을 더욱 크게 생각하시고 작게는 지역에, 크게는 국가에 기여하여 대중매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문사가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의 한때 힘있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도약하는 신문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문사가 되길 바라며 경기북부의 제1의 신문사 자리로 우뚝 솟는 그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다시 한번 포천신문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市民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매체돼야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시흥·농협의 농정관련 활동 등 굵

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뒤에는 포천신문 등 지역언론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포천신문은 1990년 창간 후 2000년 재창간에 이르기까지 포천의 수많은 사건들과 정보를 잘 보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식으로 포천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이웃들의 삶아는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리적인 사회,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의 장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장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역의 언론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정도를 견어가기 바랍니다. 정론직필!언 창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소외되고 힘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포천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창간 4주년을 맞는 「포천신문」은 앞으로 시민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정보매체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최호열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천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단없는 前進과 무궁한 發展 기원



이원규
포천우체국장

대한 기여를 해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재창간 이래로 시민 생활과 각 단체의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단순 사실적 현상 보도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 예술, 스포츠를 아우르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과 애정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언론문화 창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 존망의 골든-키라면서, 정보의 공유는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는 다시 지역을 잇는 중요한 가교인 셈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부가창출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지역언론을 대표하고 있는 포천신문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언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각 단체의 활동을 촉구하고 소개하는 한편, 지역 관심사에 대해 시민들을 참여케 하고 토론의 마당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비유얼한 디지털 그래픽 시대를 맞아 질 높은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와 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포천신문은 '멀리보는 높이 나는 새' 뿐만 아니라 '세세히 관찰하는 낮게 나는 새'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식정보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기대



유지현
한전포천시점장

동두천시, 연천군으로 취재권역을 확

대하여 다양한 뉴스제공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천신문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기사와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게 한 것은 독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포천신문 전 직원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선진 문화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지역에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신문을 발행해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매체가 된 포천신문과 같이 지역주민과 교감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그 핵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지역주민을 위한 뉴스 발굴과 발 빠른 정보 전달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지식정보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인정을 포천신문에 담아내 포천시민들이 이 사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중심을 잃지 않는 언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抱川新聞



길성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소장

그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

행해 오고 있음은 우리 포천시민의 긍지이자 자랑스러운 자랑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잎이 깊은데서 솟아나는 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한다' 고 했듯이 포천신문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그 기반을 튼튼히 다져 성장해 오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조선조 제3대 태종년(1410)때의 고 통 받고 억눌린 백성들의 심음소리를 듣는 신문고와 생각됩니다. 태종이 대궐 문루에 신문고를 달아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을 때 관가에 호소

하여 어려운 일을 처리케 했던 것처럼 포천신문은 언론의 사명을 지고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용기 있는 정확한 사실 보도로 독자의 귀와 눈이 되고 어둠과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가 변해야 하는 것처럼 지역언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민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천신문을 지켜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년간 발로 뛰어 애써오신 포천신문인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사랑 받는 新聞으로 뿌리내리길



이병업
(사)비트개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동 포천시협의회 회원과 2004년 10월 19일 포천시 승격 1주년을 맞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신문은 2000년도에 창간된 이후 취재지역을 인접 시군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간신문으로 경기북부 지역은 물론 경기전역과 정치분야를 보도할 수 있는 신문으로서 광복할만한 성장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고장의 소식을 집중 보도하기 위하여 포천신문 창간 4주년을 즈음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전달과 여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 체제

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더 없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이 어렵게 우리 고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시대 포천신문이 지방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열심히 일하고 포천신문이 살아 있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온 시민이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의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 언론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고장의 언론매체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꾸준한 사랑받는 신문으로 뿌리내리기를 기원드립니다.

포천신문 日就月將 기대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신문의 최선봉대에서 포천인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이같은 포천신문의 업적은 가히 대한민국을통렬히 문화상과 비견된다 할 것입니다. 신문은 무관의 제왕이라 일컬었다 하나 근대사회에서의 신문은 토발 문화에술입니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의 알 권리와 은폐되지 쉬운 이등 사회의 각 분야의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파헤쳐서 정상화로 이끄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는 그동안 포천사회의 어른이며 노인으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온

사회단체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포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올바른 실현과 노인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신문 재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포천노인마라톤대회는 대한노인회와 공동주최해 3천여명의 포천관내 노인들의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저널리즘에 한치의 착오 없이 전진하는 편집국장 이하 취재진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밝은 사회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 포천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포천신문의 일취월장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뚝 솟은 지역신문으로 독야청청



윤장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

맞이 않습니다. 그동안 최호열 발행인을 중심으로

포천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포천신문이 알차고 내실 있는 지역 신문으로 각광받아 명실상부한 포천시민의 대변지로 자리매김하여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였다는 데 뜻깊은 마음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월상달에는 포천시민의날을 비롯하여 명성산 역사꽃 축제 등 각종 행사들로 가득찬 뜻깊은 달에 재창간 생일을 맞으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아 청정산하로 으뜸가는 대자연의 포옹 속에서 지역신문으로 우뚝 솟아 독야청청을 자랑하는

포천신문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온갖 정성 한데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특히 우리고장 포천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다보니 전국 어느 고을보다도 평화통일의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서 항상 통통한 안보 속에 안정된 생활로 통일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화통일 칼럼' 같은 지면도 활용하여 주민들의 통일외에도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떤 역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들의 도우미가 되는 밝은 햇살 역할에 힘써 주시는 최고의 포천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제언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서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역여론 담은 큰그릇으로 성장하길



양기원
포천축협 조합장

다. 각종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경북북부 최고의 정론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재창간 4주년을 맞아 포천신문에 바라는 몇 가지 바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론의 생명은 객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독자들은 언론사의 주관적인 보도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언론이 객관성을 잃을 때 여론은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은 빛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사람을 가려 나누어 주지 않는 것처럼, 언론의 관심 분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사들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늘진

사람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끌어내어 함께 나누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 또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KBS는 '시청자 주권시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낯설기는 하지만, 팬지 기본 풍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모든 조직들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주권자인 국민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존립의 근거가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신문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지역의 여론을 담은 큰 그릇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주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